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 교훈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궁극적인 문제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기도에 대한 비유의 결론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 대조법과 반어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은 1세기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물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듣지 않으시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일부러 당시에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재판장과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과부를 대조합니다. 이 재판장이 힘을 쓰니까 하루 아침에 그 큰 원한이 해결이 됩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힘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의 차이가 훨씬 큼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비유에서는 일부러 악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굳이 어떤 장소가 사람을 지목하지 않아도 불의한 재판장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예스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목장 모임

목장 모임 순서 가이드

1. 찬 양 : 오늘의 결단 찬양을 다시 한 번 불러 봅시다.

오늘의 결단 찬양 :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 찬양 QR Code



2. 대표기도 : 순번을 정해서 한 분씩 기도해 주세요.

3. 나 눔

질문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 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질문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질문 3)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4. 기도 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2(월)	6/3(화)	6/4(수)	6/5(목)	6/6(금)	6/7(토)	6/8(주일)
대하 25-27	대하 28-29	대하 30-32	대하 33-34	대하 35-36, 스 1-2	스 3-6	스 7-8

Q T

이번 주 QT 말씀

6/2(월)	6/3(화)	6/4(수)	6/5(목)	6/6(금)	6/7(토)	6/8(주일)
민 32:16-27	민 32:28-42	민 33:1-37	민 33:38-56	민 34:1-15	민 34:16-29	민 35:1-8